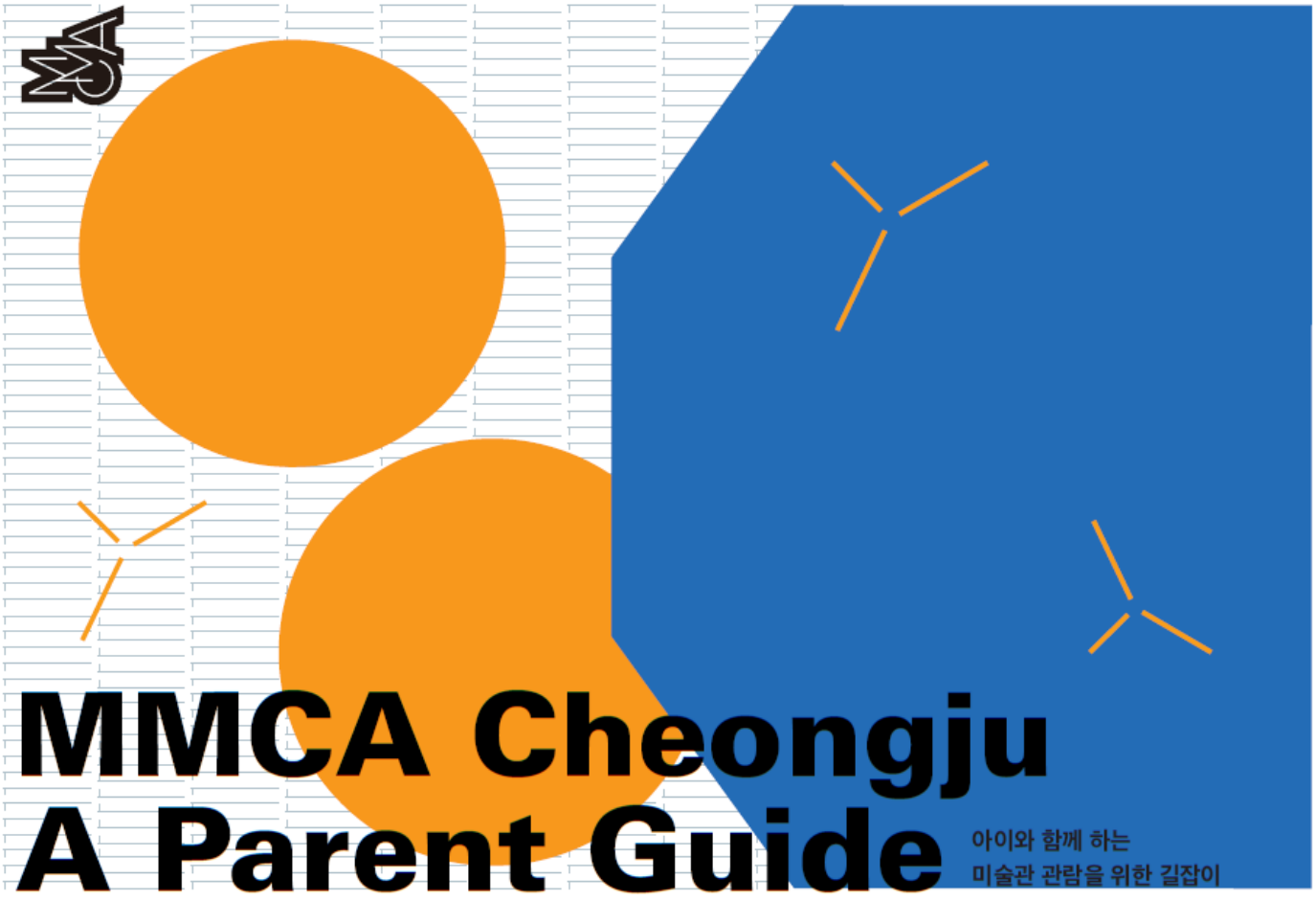


MMCA Cheongju
A Parent Guide

아이와 함께 하는
미술관 관람을 위한 길잡이

들어가며

누구나 한번쯤은 현대미술 작품 앞에서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질문하는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 관람 가이드는 현대미술 작품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아이가 느끼는 미술관에 대한 낯설음이 호기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미술관 경험이 풍성해지고, 미술관은 아이에게 기억 속에 다시 찾고 싶은 즐거운 곳으로 남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에게 미술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학습 가이드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공간을 탐색하고 미술품을 관찰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자는 만0세의 영아부터 연령대별 아이의 행동 및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아이와 함께 즐겁고 편안하게 미술관을 관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따라가며 함께 미술품을 관찰하고, 새롭게 발견한 사실과 자유롭게 상상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현대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미술관 경험은 주변 사물과 일상에 대한 관찰력과 상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력을 기르는 생활습관으로 이어지며 미래의 미술애호가로 성장하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만 0-2세

미술관의 모든 환경 요소(빛, 소리, 냄새, 온도, 사람 등)가 아이에게는 자극이 됩니다. 흑백의 대비에 시각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 반응은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잠이 들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아이에게 미술품에 대한 반응을 일부러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가 그 순간을 편안히 느끼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며, 미술관 경험이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 2-4세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세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미술품의 재료나 표현 중에서 일상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봅니다.





만 4-6세

한층 더 왕성해진 호기심과 신체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상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지식전달 위주의 학습보다는 '놀이'와 '게임'를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며 자율적인 탐구의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술관 나들이가 곧 아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학습이며 경험입니다. 미술품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알고, 관찰력과 어휘력, 언어 표현력을 높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만 7-9세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세상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개인의 의지와 역량이 많이 향상됩니다. 이제 아이는 개인의 관심사와 흥미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미술관 관람 동선을 꾸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유아기까지는 부모가 아이의 미술관 나들이를 이끄는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아이의 생각과 관심에 귀를 기울이며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순서대로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미술관 홈페이지, 또는 미술관 로비의 브로셔나 리플렛을 함께 보는 것도 동선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미술품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아이가 미술관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10-12세

이 시기 아이들은 지적인 탐구의지와 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술품을 볼 때에도 작품의 제작배경이나 이유, 작가의 특성과 기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며 논리적이고 명확한 사실 관계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들의 변화무쌍한 요구와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질문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 메모하면서 함께 답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아이가 지금 지적 호기심을 내보이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이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긴장을 풀고 느긋한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만 0-2세

1 미술관 관람 전

아기띠에 아이를 앉혀주세요

아기띠에 아이를 바깥쪽을 향하게 해서 앉혀주세요. 이 자세는 보호자가 아이 뒤에서 말을 걸어줄 수 있고, 아이는 보호자의 손가락을 움켜쥘 수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관람하세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관람하면 중간 중간에 아이를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면 대 면으로 접촉하는 것은 아이의 흥미를 유발하고, 친숙하게 웃는 보호자의 얼굴을 보는 것은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2 미술관 관람 요령

이 시기 아이들은 색상과 모양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에 흥미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굴 이미지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다음을 따라 아이와 함께 즐거운 관람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비가 뚜렷한 작품을 찾아보세요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뚜렷한 작품, 또는 색상이 대비되는 작품을 찾아보세요.

아이에게 쉬운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

아이에게 간단하고 쉬운 언어로 보호자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표현이 풍부한 목소리로 키워드 단어를 반복해서 말해 주세요.

아래 이어지는 놀이와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놀이 활동

까꿍놀이

① 아이의 시선을 작품에 집중시키고 충분히 볼 시간을 주세요.
② 이제 아이의 시야에서 작품이 안 보이도록 하세요.(뒤 돌기, 눈 가리기)
③ 장난스럽고 애정어린 목소리로 "어디 갔을까요?"라고 말해보세요.
④ 작품을 다시 보여주며 까꿍 하듯 "여기 있네!"라고 말하세요. 보호자가 '까꿍'하는 대목이 아이의 감각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눈, 코, 입 찾기 놀이

① 눈, 코, 입이 선명하게 나타난 작품을 선택한 후 아이가 충분히 볼 시간을 주세요.
② 먼저 아이에게 "OO이(아이 이름) 눈은 어디 있을까요?"라고 말하세요.
③ 그다음 작품을 가리키며 "눈을 찾아보자.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라고 말해보세요.
④ 잘 찾았을 경우 칭찬해주고, 까꿍 하듯이 "여기 있네!"라고 말하세요.



권진규(KWON Jinkyu), 〈선자〉, 1966년경, 화강석, 1층 개방수장고

3 가정에서의 활동

그림책 찾아보기

서점이나 공공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찾아보세요. 단순하고 또렷한 윤곽선으로 아이 주변의 사물이나 동식물을 표현한 책이면 더욱 좋습니다.

모빌 걸어두기

아이가 선호하는 색상이나 패턴을 아신다면, 해당 패턴이 들어간 카드를 아이방이나 거실에 걸어주세요. 유아를 대상으로 제작된 카드를 시중에서 구매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종이를 오려 직접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1 미술관 관람 전

아이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관람해주세요
아이가 배부르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관람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작품만 감상하고 미술관에서 30분이 넘지 않는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작품을 반복해서 보여주세요
이 시기의 아이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보호자에게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아이가 특정 작품을 좋아하게 되면 방문할 때마다 그 작품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반복은 아이가 미술관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고, 다음번 방문을 고대하도록 합니다.



2 미술관 관람 요령

미술관은 아이의 감각을 자극할 만한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을 따라 아이와 함께 즐거운 관람 시간을 가져보세요.

미술관에 천천히 입장해주세요
아이가 낯선 미술관 건물을 너무 갑자기 경험하지 않도록 천천히 입장해주세요.

천천히 로비를 둘러봐주세요
입장 후 아이가 미술관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로비를 둘러봐 주세요.

아이에게 공간에 대해 말을 걸어주세요
개방수장고 입장 후 공간의 특징에 대해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빛, 소리, 냄새, 온도 등)

아이의 눈높이에서 작품을 관람해주세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작품을 관람해주세요. 아이를 위로 안아 올려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의 경험과 연결된 작품을 찾고 설명해주세요
실물 크기로 제작된 동식물이나 사람을 표현한 작품을 찾고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오감과 연결해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놀이는 아이가 주변 아래 이어지는 놀이와 함께하면 아이의 사회적, 언어적, 인지적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놀이 활동

매칭 게임(Matchig Games)

매칭 게임은 아이가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줍니다.

① 입장하시기 전에 아이에게 미술관 소장품의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MMCA 전시안내 앱이나 브로셔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② 입장하신 후 아이에게 해당 작품을 찾도록 유도하시고, 약간의 힌트를 주세요.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쉬운 작품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3 가정에서의 활동

책 읽기
아이에게 미술관 경험을 확장해주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통해 글보다 시각적 어휘를 먼저 익히게 됩니다.

즐겁게 이야기 들어주기
보호자는 적절한 유머 감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관찰한 이야기를 듣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이의 세계에 진입하는 모험의 시작점입니다.

어휘력 길러주기
아이가 몸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피드백을 주실 때는 새로운 어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아이가 그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아이의 해석을 수용하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1 미술관 관람 전

관찰하고 발견하여 연결하는 습 관을 키워주세요

평소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 '**관찰**'하고 '**발견**'하며, 그것을 친숙한 경험이나 이미지들과 '**연결**'하는 습관을 키우면, 아이의 미술관 관람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아이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관람해주세요

아이가 배부르고 피곤하지 않을 때 관람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수의 작품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관람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이미지를 단순한 형태로 잘라서 '나만의 퍼즐'을 만들고 맞추기
- 자동차 여행 빙고게임: 차를 타고 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물로 3줄 빙고 박스를 만들어 사물을 발견할 때마다 표시해서 3줄 또는 5줄 빙고를 완성하는 게임
- 마트에서 색깔 찾기: 초록, 노랑 등 마트에서 장보는 중에 같은 색깔의 사물 찾기 미션수행

2 미술관 관람 요령

아이의 눈높이에서 작품을 관람해주세요

작품의 높이와 전시실 내 조명 반사 때문에 아이에게는 부모에게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키로 몸을 낮추어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작품이 가장 잘 보이는 지점을 찾아서 아이가 작품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작품을 만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작품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작품에 손을 대면, 손에 묻는 기름 때가 붙어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더러운 손으로 좋아하는 옷이나 장난감을 만졌던 경험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작품에서 익숙한 사물을 찾아보세요

이 시기 아이들은 미술품에서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찬찬히 관찰하면서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동물, 장소, 익숙한 사물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불편한 미술품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누구나 사람의 벗은 몸이나 무서운 형상을 표현한 작품 등 아이와 함께 보기에 불편한 미술품을 맞닥뜨리는 것에 대해 우려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반응을 무시한 채 관람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손이나 발, 표정의 특이점, 색상이나 재료와 같이 침착하게 관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작품을 통해 어휘와

한창 새로운 어휘를 익히는 데 흥미를 느낄 시기로, 추상회화를 함께 보면서 미술관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하나씩 익히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어휘력 증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 선(line)의 종류: 두꺼운/얇은, 곧은/비스듬한/구불구불한, 매끄러운/거친 등
- 표면의 느낌(texture): 만약에 만져본다는 어떤 느낌이 날까?
- 붓자국(brushstroke): 어떤 붓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린 것일까?
- 반복되는 무늬, 문양(pattern) 찾아보기
- 색상(color): 기본 색상 외에 어떤 색이 있을까? 이런 색을 어디서 봤을까?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 분위기, 느낌(mood): 작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우울한/밝은, 화가 난/즐거운

놀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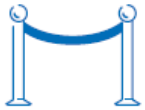
기억력 게임

회화나 사진을 30초 정도 보게 한 뒤에, 뒤돌아서서 그 장면에 대해 퀴즈를 내어 알아맞히도록 합니다. 어떤 동물이 있었는지, 어느 계절일까? 등 발견 가능한 사실부터 유추가 가능한 부분까지 퀴즈의 난이도와 내용은 아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권진규(KWON Jinkyu), 〈선자〉, 1966년경, 화강석, 1층 개방수장고

만 7-9세



1 미술관 관람 전

아이의 관심사에 맞춰 관람계획을 세워보세요
아이에게 이미 친숙한 사물이나 관심사와 새로운 관람 경험을 연결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이의 최근 관심사나 교과과정의 학습 주제 등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이와 함께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 관람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작품을 손으로 만지면 안된다는 주의를 주세요
전시실에 들어서기 전에, 미술품을 손으로 만지면 안된다고 한번 더 이야기해줍니다.

불필요한 동선을 줄여 주세요
화장실 가기, 물 마시기, 간식 먹기 등을 마치고 나서 관람을 시작하면, 불필요한 동선을 줄여서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게 하며, 그 이상이 소요될 경우 중간 중간에 짧은 휴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치북을 준비해 주세요
전시실에서 아이와 함께 작품을 관찰하고 그려볼 수 있는 스케치북을 2개 준비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나란히 드로잉하는 것은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해볼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2 미술관 관람 요령

자연스럽게 아이의 호기심을 키워주세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키우는 것이 미술관 관람의 핵심입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페이스를 유지하면 작품을 보고, 질문하며 관찰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부모가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경우, 그 내용을 노트나 휴대폰에 메모하고, 집에 가서 웹사이트나 관련 도서를 통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미술품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편한 미술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인체 누드, 잔인한 장면 등을 주제로 한 미술품의 경우, 아이와 함께 관람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나 반응을 면밀히 살핀 후에, 그 작품의 지역이나 문화적 배경, 미술관이 그 작품을 수집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작품 속 미스테리 찾기
이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주제는 '미스테리'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장소와 어떤 모습을 담은 것일까?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디테일을 살피면서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단서를 찾아봅니다. 단서는 작품이나 전시의 제목, 벽면의 설명글이나 브로셔, 또는 관련이 있는 다른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찾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좋아하는 표정, 색깔과 모양, 아이들의 좋아하는 소재와 표현을 찾아봅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소재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작품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관찰을 돕습니다.

작품 속 속임수/유머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좀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속임수를 쓰거나 유머러스한 표현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림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사진이거나, 실재하는 장면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알고 보면 여러 이미지를 조합한 합성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관찰을 통해 스스로 의문점을 풀어가며 자연스럽게 미술품 관람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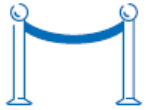
3 가정에서의 활동

뮤지엄 저널 만들기
뮤지엄 샵에서 아이가 맘에 들어하는 작품의 엽서를 구입하거나, 미술관 브로셔나 리플렛을 챙겨서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노트에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 이미지를 오려 붙이고, 그 작품에 대한 아이의 생각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간단한 드로잉을 곁들이도록 합니다. 이 활동은 아이가 주체가 되어 선택하고 기록하도록 해야하며, 부모는 지도자가 아니라 곁에서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묻고 답하며 '미술관 경험'에 대한 기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미술관 방문이 거듭될 수록 저널의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쌓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 경험을 상기하면서, 이후의 미술관 방문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소장품에 대한 답 찾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기본정보는 미술관 홈페이지 → 소장품 → 작가명을 입력하거나, 소장품 관리번호, 부문(회화,조각,공예 등), 제작년도, 현재 전시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소장품 관리번호는 미술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해 부여한 번호로서 PA(페인팅, 회화), SC(스컬프처, 조각), NM(뉴 미디어, 영상 등) 등이 있습니다.

만 10-12세



1 미술관 관람 전

이 시기의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늘어나고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관찰하고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체적인 판단이 늘어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관람 계획 세우기

미술관 인쇄물(브로셔, 리플렛)이나 미술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아이가 스스로 미술관 관람의 목표를 정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관람계획을 세워봅니다. 반드시 1층 첫 전시실부터 관람할 필요는 없습니다. 층별 약로를 보며 관람 시작 위치를 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의 수집 취미와 미술관의 수집 활동

구슬, 카드, 동전 등을 모으는 아이들의 수집취미를 미술관의 수집과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미술품수장센터'로서 미술관이 수집해온 소장품(미술품)을 보존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수장고에 보관하고, 그 모습을 관람객에게 개방하는 곳입니다.

① 아이의 수집활동(무엇을 모으고, 왜 모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② 아이가 수집한 물건들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고 주로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곳이 보관장소로 적합한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③ 이와 연결하여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과 소장품을 보관하는 장소인 '수장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미술관 관람 요령

충분한 관찰과 호기심 나누기

관람 시간은 1시간 ~ 1시간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작품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작품을 충분히 관찰하고, 발견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추가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도 들어봅니다. 이때 부모가 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반드시 메모하고, 이후에 도서나 웹검색 등을 통해 답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아이를 이를 통해 미술관 경험과 미술품 감상에 대해 진지한 탐구심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작품을 만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많은 아이들이 미술품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규칙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을 만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람의 손에는 미세한 먼지나 기름이 묻어 있기 때문에 손이 닿으면 작품이 돌이킬 수 없이 변색 되거나 스크래치가 생겨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아이가 아끼던 옷이나 장난감이 음식물이나 물감 등이 묻어 변색되어 속상했던 경험을 들어 설명해도 좋습니다. 손으로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감상할 때 작품이 오랫동안 본래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며 즐길 수 있다고 설명해줍니다. 그것이 미술관이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정해 수집하고, 그 미술품의 보관과 보존에 힘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감한 내용을 담은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은 민감한 내용이 담긴 작품을 대할 때도 많은 질문을 시작할 것입니다. 민망하고 감추고 싶은 내용일지라도 아이가 세상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민감한 주제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봅시다.



3 가정에서의 활동

테마의 날 보내기

미술품의 배경이 되었던 나라의 음식을 파는 식당에 들러보거나, 작품이 제작된 시기에 관한 영화나 책을 찾아보는 등 하루 동안 미술관 경험을 이어가며 관심사와 지식을 확장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작가 되어 보기

미술관 관람 후 기억 남는 재료로 작품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어린이의
미술관
관람을
돕는
활동지

우리 함께 미술탐구

현대미술의 재료



청소년의
미술관
관람을
돕는
활동지

깨알 같은 미술탐구

현대미술의 재료

